

의정부경전철 7월26일 기공식

2011년 開通, 1일 15萬名 승객 수송

의정부시는 신곡동 발곡 정거장에서 의정부시청을 거쳐 용현동 탑석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1km의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기공식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정부시청 앞 평화의 광장에서 시민과 협상위원, 설계자문위원 등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1995년 12월 31일 의정부경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4월 14일 의정부경전철(주)와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12년만에 기공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 4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11년 개통할 예정이다.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1편성당 236명 수송이 가능하고 하

루 최대 15만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게 되는 완전 자동무인운전으로 독일의 VAL208 차량 및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의정부경전철은 4천750억원(국비 2천280억원)이 투자돼 잠양지구-시청-의정부경찰서-버스터미널-경기도제2청-송산동(총연장 11.1km)에 건설되며 무인 정류장 15곳이 설치된다.

경전철이 2011년 개통되며 용현동 탑석에서 경원선 회통역까지 18분이 소요되며, 차량은 3분 간격으로 배차하게 된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건교부와 협의가 끝나 즉시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이달 26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의정부경전철(주)과 협의해 완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순조롭게 진행

자전거 · 보행자 도로 · 생태습지원 · 체육공원 조성



의정부시는 중앙천 합류부에서 송산지구까지 5.4km 구간의 부용천에 110여억원을 투자해 자연형 하천 공원화사업을 한창 추진중에 있다.

시는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위해 우선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도내 여울, 어도 및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여 수심확보, 유속감소, 자정능력 증진, 어류 이동통로 확보 및 서식처를 복원하고 완상자 자연형 하천 도입으로 저수 및 생태기능을 개선하게 된다.

지난해 4월 1차적으로 좌안 2.2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으며, 이

달 말까지는 2차적으로 우안 6.2km의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를 준공하게 된다.

또한 3차 토목공사 400m와 낙차공, 징검다리 등의 공사를 지난 4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공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4차 공사는 내년 3월 착공해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

부용천은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목재 테크닉 수변부대가 조성되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하천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의정부시 인사

-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 ▷보건소장 이원재
- ▷감사담당관 이우복
- ▷정보통신과장 우명현
- ▷세무과장 신상철
-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 ▷위생과장 공완식
- ▷청소행정과장 유근식
- ▷생활지원과장 차준익
-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 ▷교통지도과장 유효석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이광식
- ▷의정부3동장 이경재
- ▷호원1동장 유경수
- ▷장암동장 유은희
- ▷신곡1동장 신현영
- ▷송산1동장 정성산
- ▷송산2동장 정경수
- ▷가능1동장 정승우
- ▷가능2동장 조기신
- ▷녹양동장 이병우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택수
- ▷뉴타운사업과장 직무대리 고재기
- ▷의정부1동장 직무대리 신효승
- ▷신곡2동장 직무대리 이희재

징검다리 및 징검여울 등을 확충하는 등 하천의 수변녹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특히 부용천을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웰빙하천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천 합류지점에서 신곡동 쓰레기작환장 구간 2.5km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안전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자전거도로 옆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추가로 설치했다.

포장재질은 장시간 보행시에도 신체의 무리가 없으며 인체에 무해한 우레탄점으로서 탄력성이 탁월하여 산책로 및 운동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색상은 주변 녹지와 어우러져 편안하고 상쾌한 좌안측에 탄성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우안측은 장마철이 끝나는 대로 포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여름철 시원한 불거리와 체감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 벽천과 분수대를 현대이파크 정문앞에 설치해 야간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다양한 색상의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시원하게 뿜어내는 물줄기가 한여름 밤의 하천 경관을 한층 돋보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말 준공될 부용천은 자연형 하천 공원화사업 5.4km와 자전거도로 6.490m 설치, 생태습지원 1개소, 관찰테크 및 수변무대 각 1개소, 징검다리 5개소, 징검여울 4개소, 어도 2개소, 여석 및 갈대, 참포 등 10여종의 수생식물 3만여주를 식재하게 된다.

또한 게이브블랙 2면과 인라인스케이트 1면, 다목적구장 1면 등 체육공원도 조성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랑나누미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 의정부시에 전달



김학현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장이 김문원 의정부시장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쌀 20kg 100포를 전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지부장 김학현)는 7월 11일 오전 10시 의정부시시장실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

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역공동체 사랑나누미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쌀은 농협중앙회의 정부시지부와 (사)우리농업지킴이 운동본부의 공동 후원한 것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양주골쌀 20kg 100포(430만원 상당)를 의정부시에 전달했다.

김학현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장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과학교육원, 장애학생 과학교실 1기 수료식

경기도과학교육원 의정부과학교육관은 6월 14일부터 경기북부지역 초·중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학생 과학교실 수료식을 7월 5일 가졌다.

장애학생 과학교실은 장애 학생들에게 과학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공계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과학전시관과 3D입체 과학영화, 플라네타리움 관람을 통한



과학 체험활동과 과학마술, 과학실험 등으로 총 12시간을 운영하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感動 주는 민원행정 기대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종합민원실 開院



경기도의정부교육청은 민원업무 처리 시 민원인이 편리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존 민원실을 확장, 리모델링하여 7월 5일 종합민원실 개원식을 가졌다

경기도의정부교육청은 민원업무 처리 시 민원인이 편리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존 민원실을 확장, 리모델링하여 7월 5일 종합민원실 개원식을 가졌다.

그동안 민원 담당부서가 과별로 나뉘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껴왔던 점을 고려하여 종합민원실에는 평생교육, 보건 민원 및 제 증명, 그리고 학자금 대부담담을 배치하여 친절하고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오후 5시 종합민원실 개원식에는 교육청 전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노정순 교육장은 "민원인

을 위해 3S, 즉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민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의정부교육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업무처리를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의 열린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과 각종 민원이 한 장소에서의 효율적인 처리로 대민 신뢰도와 교육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천군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

경기도내 유일, 사업선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 유호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제2기 신활력 지역 공모사업에 연천군이 제출한 연천 DMZ 로하스 유망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실시한 제2기 신활력 지역 공모사업에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돼 2010년까지 최대 9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선정에 대해 김문수 경지

사는 "경기도에도 낙후된 시·군이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 사례라 연천지역을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뜻을 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 DMZ 로하스 유망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일대 8만8천543㎡지역에 농산물 가공시설, 휴식휴양시설 및 체험 편의시설 등 주민참여형 휴양공

간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천군은 총 15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으로 소득향상과 고용촉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관료문제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번 사업에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2010년까지 3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세청 새로운 CI 선포

세계 초일류 세정기관 · 미래지향적 이미지 상징

의정부세무서(서장 이종기)는 국세청(청장 전근표)이 국가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초일류 세정기관으로서 위상과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새 CI 제막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이 새롭게 CI를 제정하게 된 것은 초일류 세정기관으로서 홈택스 등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 구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 정착, OECD국 세정장 회의의 성공적 개최, Leeds Castle Group 창설멤버 참여 등 조세행정의 글로벌 리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국세청의 역량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함이다.

또 대내적으로는 직원의 자긍심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Emblem]

과 일체감을 강화하여 조직의 혁신 에너지를 결집시킴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초일류 세정기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했으며 '국가중추기관으로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에 책임지는 세계 초일류 세정기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IC 10월1일 폐쇄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임시로 개설된 호원 IC가 오는 10월 1일 폐쇄된다.

의정부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공사를 위해 임시로 개설된 호원 IC를 폐쇄 한 뒤 12월 중순쯤 전체구간을 완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통해서 폐쇄에 따른 홍보와 함께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주변 도로를 1차선 씩 늘리고 신호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또한 6차선인 동부간선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하고 송추길도 4차선을 6차선으로 늘리면서 민락 2지구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김덕현 의정부시 도로과장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호원 IC 폐쇄되기 전까지 주변도로를 확장하는 등 도로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요술풍선으로 자원봉사 날로 인기

의정부 지역행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풍선으로 행복을 나누는 고품질봉사단 4개조 26명의 활동이 활발하다.

2003년 6월 의정부노인복지회관에서 처음 풍선아트를 접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만들어진 고품질봉사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계신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은 풍선아트봉사를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요술풍선을 들고 찾아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고 있어 인기가 아주 높다.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꽃, 동물, 양관, 팔찌 등을 바라보다 보면 어린이가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입가에도 함박웃음이 지어진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10 동래학춤

학이 춤추는 것과 같다는 학춤

동래학춤은 1972년 9월 19일 부산시무형문화제 제3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동래학춤은 동래지방에서 전승되어오는 학춤이다. 주로 정월대보름날 동래야유나 줄다리기를 할 때 추던 춤으로, 어떤 춤꾼이 도포에 갓을 쓰고서 덧배기 춤을 추는 모습이 "학이 춤추는 것과 같다"라고 한데서 학춤이라 이름 붙여졌다 한다.

동래학춤은 의상을 따로 갖추지 않고 일상의 옷인 도포에 갓을 쓰고 바지저고리, 버선과 미투리를 신고 즉흥적으로 춘다. 반주악기는 팽과리와 장구, 징, 북 등의 농악편성으로 되어 있고 장단은 굽거리 장단이다. 춤사위에는 양손을 너울거리 는 날아기는 사위, 한 발 들고

서 있는 발 드는 사위, 학이 날개를 폈다가 오므리는 모습의 펴는 사위와 오므리는 사위, 좌우 상하를 바라보는 사위, 왼발을 무릎을 굽혀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을 뒤로 편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거나 상하로 가볍게 움직이는 배김새 사위 등이 있다. 구성을 보면, 일반 민속춤과 같이 일정한 순서로 짜여져 있지 않고, 자유분방한 즉흥성과 개인적 맛이 강조되고 있다.

동래학춤은 1인이 추는 독무(獨舞)와 여럿이 추는 군무(群舞)로 나뉘는데, 모두 의상은 흰 도포에 갓을 쓴다. 춤사위는 학의 생태를 주로 표현하며, 음악

은 구름(口靄)과 사물(四物)의 굽거리와 자진모리장단이 주로 사용된다.

동래학춤은 자연미와 예술미의 조화가 뛰어나고 격조 높은 춤사위로 표현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춤이다. 예능보유자 김동원 씨, 유급선 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